

#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3  
Mar. 2021  
Vol.9 No.03

- 주안에 세미나
- 주안에 장학회 소식
- 간증 / 기고
- 부활절 특집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근 1년만에 교회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묻어난다. <사진: Paul Yang>

## 감사와 기쁨, 찬양이 향기처럼

### ■ ICY 찬양의 밤

지난 3월 6일 저녁 7시 30분 벨리채플에서는 특별한 찬양의 밤이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 1년 넘게 학교는 물론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울타리 안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ICY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분수대 앞 광장에 마련된 특별 무대, 줌을 통해, 혹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던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해야하는 등 여전히 부자유스런 상황이지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활기가 넘쳤다.

학부모들과 권사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야식을 즐기며 곧 팬데믹이 끝나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1년이 넘게, 코로나에 갇혀 보낸 시간들이 인생의 낭비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면 도리어 믿음을 새롭게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관계화보: 4-5면>

| 조용대 기자 |

■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미나



## 1년만에 대면훈련 성경적 지도자 훈련 '열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면훈련의 첫번째 세미나로써 지난 3월 21일 부에나팍의 미국인 교회를 빌려 시작되었다.

6주간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 최혁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팬 대믹이 시작된 이후 첫 대면 훈련이었다. 일년만에 만날 교우들이 보고 싶어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모여드는 성도들의 기대가 짐작이 되었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은 3시간전에 오셔서 성전을 소독하고 오디오를 준비하셨다. 성도들을 위한 커피와 차도 손수 마련해 주셨다.

강의의 필수인 파워포인트도 칠판도 쓸 수 없는 환경이어서 담임 목사님은 힘든 시간이었고 전도가 빨리 나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사모하는 60여명의 리더들의 열정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치 않는 성도가 있을 리 없겠지만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 필수 과목일 것 같은데 리더의 필수 훈련이란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별하신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발돋움 하지 않을까? 그런 주안예교회 성도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미나가 성경적 리더십의 교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마태복음 25:23)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어지는 세미나에 온 시선을 모은다.

| 이예스더 기자 |



**이단의 이해 & 신천지 세미나**

강사: 한선희 목사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 연구회장)  
신청기간: 3/28 ~ 4/4(주일)  
훈련: 4/7 ~ 5/5(수), 5주간 7:30PM

■ 주안에세미나

## '건강한 신앙생활, 섬김의 자세'

주안예교회는 2021년 표어에 걸맞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한 해를 보낼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다양하게 오픈한다.

첫번째로 “이단의이해 & 신천지 세미나”가 4월 7일부터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Zoom 으로 진행된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할수 있으며, 특별히 리더로 섬기시는분들은 필수로 참석해야한다. 또한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갱년기 이해와 대처” 세미나도 5월 7일부터 5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zoom 으로 진행되며, 이 세미나는 최혁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다. 행정명령의 완화에 따라서 대면훈련도 오픈될 예정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되는 대면훈련인 관계로 양 채널이 각각 다른 스케줄이 정해졌다.

MP 채널은 3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고, 밸리채널은 5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이다. 이 훈련 또한 리더들은 필수로 참석해야한다.

| 오희경 기자 |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MP Chapel**  
훈련: 3/25 - 5/6(목) 7:30PM  
장소: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Valley Chapel**  
훈련: 5/12 - 6/16(수) 8PM  
장소: 밸리채널 본당

최혁 목사님의

**갱년기**  **이해와 대처**

신청: 4/18 - 5/2(주일)      훈련: 5/7 - 5/28(금) 7:30PM

■ 결혼 세미나



##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말씀 위에 든든히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에 머무르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주안에결혼 시즌1”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미 결혼생활을 감당해내고 있는 장년들을 위한 “주안에결혼 시즌2”가 훈련을 시작 하였다.

솔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커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시작하는 결혼이란, 시작하는 단계인 청년들에게도 기대만큼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장년들 또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위한 새로운 각오나 다짐을 이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훈련이라 하지 않을수 없었다.

Zoom 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주

안에결혼 시즌1”과는 달리 3월 12일 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에 대면으로 진행이 되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모든 훈련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에 따라, 큰 예배당에 37명만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안전하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동반하는 유익한 훈련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안에결혼 시즌2” 훈련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완성해가시는 한분 한분이 되시길 기대한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세마장학회

##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 차곡차곡

주안에장학금 지급 방식이 이제까지 에세이와 교회생활 기준에서 금년부터 성경말씀 암송으로 바뀌고 대상도 ICKidz 유년부부터 확대한 후 3개월이 지났다.

주안에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친구약 성경말씀중 10장(편)을 매월 암송하고 확인 받는 학생들이 60명에 달해 성경 암송 바람이 불고 있다.

부모들의 호응과 열성으로 형제 자매들이 다 참가하는 가정들이 많고 매달 마지막 토요일과 주일 오후 암송을 위해 전 가족이 함께 와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흐뭇하다.

어려서 암송한 하나님 말씀은 평생 가슴에 남아 걸어가는 인생 길에 빛이 되고, 밤에 등불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보다 소중한 복



된 자산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암송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 실제로 대학생만 되어도 쉽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안에장학위원회에서 8월말까지 정해진 분량을 암송한 실적을 평가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아직 암송을 시

작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기를 바라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암송과 장학회 관련 문의: 교육부 담당 전도사들이나 장학위원장 조용대 장로

■ ICY 찬양의 밤

## 행복한 만남의 무대, 활기 넘친 '코이노니아'



■ 마더와이즈/ IC Happy 행복한 예배시간



■ ICY 찬양의 밤

#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 제17기 주안에삶

## 주님 안에 성실한 청지기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허락하신 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앞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미천한 나에게 또 한단계 발전된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어둡기운데에 빛으로 보이시는 주님의 진리를 또 알게 하여 주심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안에삶 3권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녹아있는 의미와 주님다시 오실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지역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떠한 사명과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지, 청지기로서의 섬김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고 그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알았으면 그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하기에, 지금의 이 배움으로 인해 앞으로의 나의 신앙생활이 이유가 있는 언행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그때 그때 변하는 즉흥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안에서도 교회밖에서도 일관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안에삶 3권은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알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적용하여 지켜나가는 것을 배웠으니, 이제 나의 삶이 이전보다 주께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하게 고수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과 오랜 사고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주의 길로, 주님보시기에 합당하신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어렵פות하고, 갈팡질팡 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견고하게 다져져서 시험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힘과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훈련을 마치면서 나의 다짐은 훈련 기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간증들을 기억하고, 교육받았던 말씀들이 나의 가슴속에 충만하며, 항상 깨어서 주께 기도하며, 주안에 내가, 내가 주님안에 있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함을 항상 점검하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 황중훈 집사 |



■ 제17기 주안에삶

## 지식에 머물던 말씀, 삶의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지난 7주 동안 주안에삶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1권에 이어 2권을 시작하기 앞서 나를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영적인 공격 또한 만만치 않았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광야의 길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듯 삶 구석 구석을 만져 주셨습니다.

첫 시간 성경 읽는 법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하루를 살기위해 의식주 만큼 중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첫번째 우선순위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건의 시간,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 주님의 교제가 다시 회복 되었습니다. 두번째 시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나의 기도하는 삶을 돌아보며 중보기도의 삶을 회복 시켜 주셨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오랜 중보기도 또한 인내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함을 각인 시켜주셨습니다. 셋째~다섯째 시간에 걸쳐서는 믿는 자녀에 대한 사탄의 공격통로, 방법, 주님의 보여주신 대처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세분화해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고, 삶에 적용하며 말씀으로 비추어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주님앞에 가지고 나오는 입체적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나갔던 상처들이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의 상황으로 나를 공격했던 문제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삶의 모양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도 전과 다른 풍요로운 삶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영향을 받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삶 1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면, 2권을 통해서는 좀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계속 연결되는 선 순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삶의 구석구석 - 자녀양육, 가족관계, 인간관계, 경제개념, 시간의 지혜등등...,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며 자유함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또한 주님이 주인되시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것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 이현주C 집사 |

■ 말러 교향곡 2번 '부활'(Resurrection)

■ 기고

## 슬픔과 실패를 부활로 승화

이 교향곡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한 작품들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부활에 관한 서사를 직접 그리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의 내용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자 했던 말러의 심경이 녹아 있어 종교색이 짙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삶을 지배하는 화두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어린 시절 경험한 주변인들의 죽음은, 예민한 감성과 왜소하고 병약했던 신체를 가진 그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이를 계기로 일생에 걸쳐 인간의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끊임 없이 던지며 답을 구하고 자신의 작품에 투영하게 된다.

'부활'이라는 제목은 말러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5악장의 합창 부분에 인용된 시의 내용에 기반하여 붙은 별칭이다. 원래 말러는 전작인 교향곡 1번의 연장선에서 2번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교향곡 2번의 도입 부분을 완성한 이듬해 봄에 그의 아버지가, 가을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여동생까지 죽으면서, 1년여의 시간 동안 세 명의 가족을 잃은 말러는 극심한 슬픔을 겪는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 거기에 전작의 초연 실패까지 겹치며 창작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고 6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야 비로소 교향곡 2번이 완성된다.

총 5악장으로 구성된 이 교향곡은 죽음 뒤의 삶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분노와 냉소, 죽음에 대한 공포, 영원한 삶에 대한 희구, 부활이라는 해답 등의 테마를 구체적인 음형으로 제시하며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한다. 죽음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부활을 꿈꾸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5악장 합창 부분 가사의 일부를 살펴 보면,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받은 삶에 이르도록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티

끌같은 내 육신은 짧은 안식 후 부활하리라. 너 씨 뿌려져 다시 피어나리라. 너의 존재와 고통 모두 헛되지 않았다. 네가 받은 고통이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나 살기 위하여 죽으리라. 부활하리라"

다른 작가의 시를 인용하고,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 가사를 사용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을 승화하고자 하였다.

말러 교향곡은 길이가 아주 길고, 형식이 매우 복잡하며, 엄청난 연주 인원을 필요로 하고, 합창이나 독창 같은 성악적 요소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생전에 말러 자신은 뛰어난 작곡가로서 회자되기 원했으나, 실제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더 인정받았다. 자신의 작품이 지휘만큼 높이 평가받지 못 하는 것에 대해 그는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휘자로서의 경험은 그의 작품에 세세하게 반영되며 더욱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했고, 후대에는 그를 교향곡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작곡가로 높이 평가받게 만들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말러 음악 애호가들을 탄생시키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대편성의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압도적 음량이 뿜어내는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것 만큼 좋은 감상은 없을 것이나 COVID-19으로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말러가 신뢰했던 제자인 브루노 발터(Bruno Walter),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레너드 번스타인(Lonard Bernstein), 재기 넘쳤던 젊은 시절의 주빈 메타(Zubin Metha)가 지휘한 녹음들을 들어보며 서로 다른 해석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황성남 집사(성가대 지휘자) |



## 부활절 맞을 때마다

부활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지 3일 째 되는 날, 구약의 초실절의 예언에 따라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는 구약의 초실절이 아닌, 신약의 부활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온다.

춘분 후의 첫 만월 후의 일요일을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로 정하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부활절은 무교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인 일요일이다. 그레고리력(서기 16세기)을 쓰는 서방교회인 천주교회·개신교회들과 율리우스력(서기전 1세기)을 사용하는 동방교회인 정교회 간에는 역법의 차이로 부활절의 기준이 다르므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태양력인 그레고리력의 날짜와 율리우스력의 날짜는 차이가 난다. (위키백과)

부활절 주일이 왜 일정하지 않은지 설명하기 위해 위키백과의 정의를 갖고 왔습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절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17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25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건이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 되신 어린양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심이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철저히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담임목사님의 권유로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 새가족 소개(벨리채플)

## 떠오르는 어머니님 소천

나는 고국의 엄마가 죽음과 싸우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 돌아왔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부활절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깨고 전화 벨이 울리면 혹시 엄마가? 하는 불안함이 밀려왔었지요.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힘들게 싸우고 있었을 때 하루종일 말이 없는 엄마 곁에 있려고 2주간 휴가를 얻어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목욕시키려고 안아 올리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마음이 아파 찬송을 크게 부르며 비누칠을 하고는 했었지요..

그 때로부터 4개월 후 엄마는 전화선을 통해 “나는 행복했었어.” 한마디를 하시고 전화 통화를 마쳤는데,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태평양 넘어 아파트 수위실에 썼을 때 “초상집에 오셨습니까?” 하는 말에 엄마가 나도 안보고 떠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이제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체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촌 큰오빠와 나는 알콜을 갖고 깨끗이 닦으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순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찬양하고 엄마를 떠나 보내고 싶어서 찬양 연습을 하는 동안 내내 속으로 부활절이 지나고 엄마를 데려가 달라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엄마는 부활절을 보내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이조의 여인이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일제시대 때 북경에서 살았고, 6.25때 부산에서 전쟁을 지났던 시간 외에는 서울에서 살았던 엄마는 제가 미국으로 온 뒤 낯선 인천에서 살다 떠나셨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되어 나는 시체 기증을 결심합니다. 자취 없이 사라진 나의 형체를 부활시킬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뇌사상태가 되면 장기 기증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시체를 드릴 생각입니다.

철저히 죽고 온전히 다시 살아날 그날을 믿으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겠습니다. | 이예스더 기자 |

##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저 당연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성장하였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그 당시에는 큰 축복이었던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저희 자녀들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된다면 자녀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지혜롭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전에 주님을 사모했던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 이사관계로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때의 저의 마음을 뒤돌아보니 말씀 중심이었던 삶이 그리워 다시 목사님을 찾게 되었고, 주안예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주님을 이전보다 사랑하고 무엇보다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딸들에게 말씀으로 무장되는 진정한 삶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주안예교회에 저희 가족 모두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설레임과 기쁨으로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마침내 반가운 최혁 목사님을 8년만에 뵈었습니다. 예배전 상품 전달 이벤트 시간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시면서 매주 샌디에고에서 오시는 집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걱정했던 교회와 집과의 거리에 대한 염려를 버리게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하며 귀를 쫓긋 세우며, 주시는 말씀에 온전한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며 집중하였습니다. 2021년 첫 시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감격스러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을 기초부터 다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안예살 17기와 주안예말씀을 공부하며 기초를 튼튼히 하여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하나님 사신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본성에서 본성으로.... 죽어있던 옛 본성에서 지금은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안예교회를 섬기며 너무나 행복하고, 앞서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에 교회에 낮설음과 적응 시간이 필요없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가족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져가는 것을 체험하며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은 저의 딸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회개의 눈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갈망한다는 고백을 들으며 얼마나 행복과 감동이었는지요 말씀의 능력은 나 자신과 가족과 다른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안예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에 하나씩 참여해 가며 신앙의 모습을 다시 재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이 영적으로 힘들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받고 있는 은혜를 열매 맺기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진화 집사

■ 제17기 주안예살

## “뿌영던 믿음의 시야를 환하게”

먼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매 과정과 일정속에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영적 참채기를 겪고 있던 제가 말씀을 붙들기 위한 방패로 신청했던 주안예살 훈련은, 시작은 많은 속제와 타이탄한 일정으로 내심 과연 잘 마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지만, 어느덧 모든과를 마치고 되돌아 보니, 매 순간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함이 아쉽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모태산양으로 말씀과 믿음을 당연하고 막연하게 알고 믿어왔던 제게는 너무 잘 알고 익숙하다고 생각한 가장 기초적인 타이틀이지만, 거듭남, 회개, 믿음, 순종, 하나님의 가족, 성령충만... 정작 모든과가 너무나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이었고, 제 믿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막연하고 뿌연연기처럼 가려져있던 제 믿음의 시야를 깨끗하고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초석을 다시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을 배우고 나누는 과정속에 함께 훈련에 참여하셨던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게 되심으로 모든 동지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함께하였는데,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지으신 저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형제 자매이고, 믿는 우리가 합심함으로 얼마나 선하고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지 다시 깨달아 알게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머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늘어가는데,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열매가 없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어김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나의 믿음의 실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주안예살과 함께한 연약하고 작은 믿음의 나를, 주님은 모든 과정속에 끊임없는 은혜와 깨달음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만 아시는 인생이라는 시간표 속에 저를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배웠던 모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이름만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속에 축복의 통로로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스런 내가 되기를 기도하며, 훈련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와 사랑을 제 마음에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현영 집사

■ 교육부 소식

## ICKidz 연령별 세분 예배

아이들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어릴수록 각 나이별 차이도 큼을 봅니다. 특히 만나보지 못하는 기간중에도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커서 교육부 예배로의 입성하는 시기를 맞았네요. 교육부 예배가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지면서 나이에 맞춤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ICHappy(유아 2-3.5세): 10am, ICJoy(유치 3.5-5세): 9:45am, ICNow(유년 K-2nd): 9:45am, ICPower(초등 3-5th): 9:45am

또한 온라인 예배라도 아이들이 예배에 더 적극적이고 친근감있게 느끼도록 선생님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기도와 성경본문 읽는 부분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키즈 예배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리게 되었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Nex-Gen Online Worship 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니콜 전도사 |

■ 목장소식/ 벨리 3목장

## 서부남 권사 동부 이주 송별모임



“매주 목장모임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슷한 연배 목원들과 나눔을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동부에 있는 손주들 집에 갔을 때도 시차 때문에 자주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줌을 통해 얼굴을 대하고 목사님 주일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벨리채플 3목장 서부남 권사님이 3월말 아들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로 이주를 앞두고 목원들과 아쉬운 이별의 자리를 가졌다. 예전 큰 레스토랑을 경영하던 경험을 살려 벨리채플 봉사국을 맡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주방 관리와 조리를 도맡아 해온 권사님의 모습이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서부남 권사님의 앞날을 위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목원들이 마련한 사랑이 가득 담긴 카드와 선물을 전달하고 주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축복했다.

| 조용대 기자 |

■ 국립공원 순례/ 요세미티(Firefall)

## 자연이 만드는 경이, 3천피트 ‘불의 폭포’

The Yosemite Firefall 은 여름 시즌중 가장 중요한 행사중 하나로 1872년부터 존재해 왔다. 이 행사는 요세미티 빌리지 안에 자리잡은 The Camp Curry 에서 진행되었다. Camp Curry 바로 뒷산이 Glacier Point 지역인데 이곳 정상에서 불이 폭포처럼 3000 피트 아래에 있는 캠프 지역으로 쏟아져 내려와 야밤의 풍광을 들썩이게 만드는 행사였다. 캠프에 모인 인파들이 밤9시경에 산정상을 향해 불 폭포 준비가 되었다고 소리질러 묻고 이에 응답을 하면 The Camp Curry 주인장이 마치 아주 대단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듯 “Let the fire fall” 하고 외치면 거대한 불덩어리들이 Glacier Point 의 절벽을 타고 불폭포를 만들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캠프에 숙박하고 있는 여행객은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 여름밤의 불의 축제를 즐겨왔던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해 캠프 관계자들은 산 정상 부근에서 나무 껍질을 비롯 석탄조각을 싣고 올라가 행사를 준비하였다. 당연히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했고 캠프 주변에는 야밤에 자주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인간이 만든 자연과 배치되는 이 행사는 급기야 1968년 내셔널 국립공원 관리책임자에 의해 중지되었다. 전혀 자연과 상관없는 이벤트였던 것이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가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1968년 1월 25일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행사를 끝으로 더 이상 자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이름의 Firefalls 가 요세미티에

빙하가 다 녹은 3천만년전 부터 요세미티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위대한 모습, 경이로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놀라운 곳이다. 이 Firefalls 는 요세미티 빌리지에 들어서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한덩어리의 바위인 엘캐피탄 동쪽 끝에서 나타난다. 이 현상은 겨우내 눈이 내려 엘캐피탄 위쪽에 쌓여 있다가 2월중순 이후에 날씨가 아주 맑고, 바람이 잦고, 구름도 없고, 살포시 쌓인 눈이 녹아 엘캐피탄 바위 끝에서 녹아 내려 실날 같은 작은 폭포를 형성해야만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폭포가 만들어지면 석양시간에 태양빛이 바위를 비추게 되는데 그 빛이 폭포를 비추면 폭포는 아름다운 주황색,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되어 마치 용암이 흐르듯 폭포 주변을 붉게 만들게 된다.



요세미티의 원주민들은 이 곳을 아주 오래전부터 발견을 하고 마치 신성한 곳으로 여겨왔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내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중 2월 중순 이후 대략 열흘 남짓 나타나는 경이로운 현상이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다. 2월이라 해서 매년 관측되는 것도 아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 누구라도 놓치고 지나가기 쉽상이었지만, SNS의 영향으로 약 10여년 전부터 사진작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이 기간동안 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별도의 퍼밋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로 발전을 하였다. 감히 계란티할 수 없는 이 자연현상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작가들만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이곳을 찾아와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기 동안 연출되었던 다른 한 편의 인위적인 The Fire Fall 을 상상해 보게 된다.

지난 5년이라는 기간동안 요세미티를 오르내렸는데 매년 실패를 하다가 올해 드디어 한 컷 얻을 수 있었다. 한해는 겨울 가뭄으로 적설량이 없어서, 한해는 올라갔는데 비가 와서, 한해는 구름이 잔뜩 가려 도 대체 햇볕이 없고.. 그런데 올해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올해도 자연이 있었다. 오후 내내 아주 작은 구름만 있어서 귀한 현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석양시간에 구름이 발달하더니만 급기야 구름이 많이 내려와 폭포를 가리게 안타까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실망의 눈초리로 카메라의 삼각대를 제거하고 철수 준비를 하

던차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만 구름이 바위 위로 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던가. 또 다른 함성이 울렸다. 모두들 바로 그 광경을 눈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철수하던 손놀림을 분주하게 움직여서 마지막 2분 사이에 창조주가 만드신 이 위대한 자연의 아주 귀한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다. 손끝에 걸려오는 느낌으로 연속 셔터를 누르고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모두들 외치는 함성과 함께 행복의 미소를 기쁨으로 나누게 되었다. 창조주께서 그 손끝으로 만드신 귀한 이 지구별에서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셨다. 행복한 한 순간을 맛보게 되었고 같이여행-가치여행의 순간임을 확인하였다.

| 윤성문 집사(전문여행가이드) |



■ 권하고 싶은 책/ 따뜻한 카리스마(이종선 저)

### 신뢰와 공감 등 인간관계의 ‘이끌림’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많은 일상들을 맥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잃어버린 일상중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게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짚어 보니 사람들과 호흡하고 부딪히는 시간이었음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는 머나먼 전설을 더듬듯이, 나를 스쳐간 많은 인연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안타까웠던 순간들과 아쉬웠던 기억들이 밀려들기 시작함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듯 싶었다.

결국은 서재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따뜻한 카리스마” 라는 책을 펼쳐 들고 말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기표현, 자기극복, 신뢰, 겸손, 현명한 거절, 칭찬, 배려 등등... 아직도 머리속의 지식으로만 맴돌고 있는 단어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설득력에, 페이지를 넘겨 갈수록 깊은 공감에 빠져 들었다.

작가는 카리스마를 “이끌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따를만한 믿음이 느껴지게하는 신뢰와 공감을 통하여서 결국은 믿음을 쌓아가게 하는 이끌림! 특별히 따뜻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정치인, 경제인, 방송인, 교육인, 예술인 등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유명인들의 예를 들어가며 그 분들의 성공신화를 나누는 대목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가느다란 기대를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리더의 자리를 감당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따뜻한 카리스마는 갖추어야하는 필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칭찬” 이라는걸 늘 염두에 두며 “칭찬” 에 인색하지 않은 성숙한 리더를 꿈꾸어본다. | 오희경 기자 |



### 부활의 새벽

죽음으로  
부활하신  
당신.

순종으로  
부활하신  
당신.

날마다  
나만 살아서  
당신을 죽이고  
내가 죽지 못하여  
내 안에  
죽어 계신  
당신.

내 뜻만 나타나  
당신 뜻은  
늘 십자가 그늘에  
숨어있고  
천만번 통곡해도  
부활의 당신을 만나기는  
아직도 먼  
새벽

〈김소엽 시인〉